

데스크탑



강성수 정치부장

현정 사상 조유의 대통령 탄핵과 과반으로 치러진 5·9대선에서 '대세론'을 줄곧 유지해오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적폐청산'과 '통합정부'를 외쳤던 문 대통령은 종전과 달리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 대통령 선출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는 만큼 새 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수행하게 됐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새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정당간 협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국정공백이 심화됐던 만큼 출범하자마자 통합과 실득 등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처지다. 대선공약을 검증·보완하고, 내각과 청와대의 밑그림을 그릴 시간 조차 갖지 못한 채 국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능력위주 대통령 탄핵인사

우선 해결에 나서야 할 큰 숙제는 북핵 위기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안보위기, 경제위기 등이다. 특히 사드와 위안부·독도 문제에 따른 중국 및 일본과의 갈등은 사실상 '시계제로' 상태다.

가문제 등도 풀어야 한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인수위 기간이 없었으니 대통령 취임이후 총리지명도 국회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임총리 제정으로 장관후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과정까지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 인적 세팅만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새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과반에 이은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만큼 헌법 개정을 사실상 숙명이나 다름없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새 체제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컸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가져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개헌론이 제기됐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가동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개헌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제 대선은 끝났다. 새 정부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유권자들도 촛불이든 태극기든 이번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운명체의 미래발전을 위해 전 국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사설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숙제들

어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놓인 상황을 볼 때 숙제가 여대어는 정부보다 많은데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

대통령 인사로 국민 통합을

따라서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크게 5~6가지 정도로 집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숙제는 앞서도 언급했듯 야당들과의 협치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119석에 불과하다. 이 의석으로는 원활한 국정운영은 커녕, 향후 시작될 개헌 논의는 물론 국회선진화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 낼 수 없다.

기고



김희대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 겸정

1996년 UN 해양법 발효 이후 한 나라의 해양력은 국력의 총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원이 무한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중심으로 해양 관할권의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북아 주변 해역은 세계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예측된다.

미래 해양시대, 해양경찰의 역할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5년 총 해양사고는 전년 대비 771건이 증가한 2,101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바다오염은 물론 대형 인명 사고까지 늘고 있다.

구조 요원확보로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져 국민의 편안함 인식도가 높아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해양에서의 범 죄는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범죄가 주류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해상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 이후 기능을 축소된 정보, 수사 기능을 조속히 환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 충돌, 화재, 응급환자, 인명구조, 범죄단속, 중국 어선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꾸준한 교육, 훈련으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독자투고

소방관의 다짐

최근 어지러운 국내외 환경과 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공무원의 행태가 마치 모든 공직자의 행위인양 비취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올바르게 청렴함을 다짐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모든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로서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 든다.



한정환 평양소방서 소방위

자로 1960년에 탑오조사국이라는 부패 사정기관을 설치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리관유 조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적절 의지로 탑오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렴해야만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는 안전한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진 속 세상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신안군의 낙도 유권자들이 9월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소중한 한 표를 위해 배를 타고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신안=이주영기자

독자광장

'수학여행' 사고 주의보

상춘객들이 늘어나는 4~5월 각 학교마다 수학여행 학생들을 데우고 떠나는 대형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4~5월에 대형버스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이 기간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이동 차량이 급증할 것을 보고 학생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버스 운전자에게 수학여행 차량 출발 전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속도·신호준수, 안전띠 착용 등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14(일간)
사장·발행·편집인: 최영기, 사무이사: 권정국, 사장: 이철호, 논설실장: 정정호
대표전화: (062)720-1000, 구독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유머@세상
■어느 마을의 암담
■초진과 재진
■핸드캠 골프기어도
70타 폴퍼는 가정을 먹여 살리며
80타 폴퍼는 골프장을 먹여 살리며
90타 폴퍼는 친구를 먹여 살린다.
그리고 100타 폴퍼는 골프회사를 먹여 살린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